

“변화 끌어내는 작은 노력들 모아 성평등 사회 앞당겨야죠”

2026

새해 희망 키워드 <2> 동행
한솔 광주여성의전화 활동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 있는 여성 차별에 맞서, 피해자 걸을 지키며 현장을 누비는 활동가.

한솔(여·33·활동명) 광주여성의전화 활동가는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도 여성폭력 피해자들과 동행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한솔씨는 지난 2020년부터 가정·성폭력상담기관인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제도 개선 활동을 해 왔다.

그는 교제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피해 상담과 동행 지원을 담당하고, 상담 이후에도 기자회견, 의견서 제출, 법원 방청, 연대 활동 등을 통해 사건을 사회적 문제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여성 인권 집회, 모임, 글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2024년 '화순군 위탁운영기관 내 성추행 사건' 지원 활동을 한 것이 대표적이었다. 이 사건은 2024년 5월 회순생활문화센터 직원이 회순문화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사건으로, 한솔씨는 회순문화원장 자진사퇴 및 직위 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했다.

같은 해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도 동참해 탄원서 제출과 모금 운동,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

2020년부터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기자회견·집회·글쓰기 등 동행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 활동 계기
연대와 피해자 회복 경험이 동력
“사회적 인식 개선 위해 현장 지킬 것”

필요성을 알리는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 사건은 한 여성이 5년간 교제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군산의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술에 취해 잠든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한솔씨는 “특히 교제폭력은 사적인 갈등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반복적인 통제와 위협이 동반되는 구조적 폭력”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솔씨가 여성 인권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2016년 강남역 살인 사건이었다. 그는 강남역 인근 남녀공용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여성으로서 일상에서 느꼈던 불편함과 차별을 직면하게 됐고, 여성 인권을 신장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로 광주여성의전화에 입사했다.

한솔씨는 동료들과의 연대와 피해자들의 회복에서 얻는 보람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여성 인권 운동은 개인의 힘만으로 신장하기에



3일 한솔 광주여성의전화 활동가가 광주시 서구 농성동 광주여성의전화 사무실 현판을 가리키며 웃어보이고 있다.

한계가 있지만, 같은 뜻을 가진 동료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에서 큰 힘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사건이 긍정적으로 해결되는 순간마다

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했었는데, 여성 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며 “이같은 경험을 하면서 작은 노력이 쌓여 사회적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믿음도 활동의 동력이 됐다”고 했다.

아직 현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한계점도 분명하다고 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가 짧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입증 책임을 지는 구조 등 제도가 피해자의 삶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순간을 자주 마주치게 된다는 것이다.

한솔씨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금방 일어나지 않아 지칠 때도 있지만 연대와 피해자 회복의 경험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히 현장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여성 인권 활동가로서의 최종 목표는 '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작은 변화들이 모여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갈 바란다고 전했다.

한솔씨는 “2026년에는 여성폭력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나 관계의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 사회적 시선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며 “불편하더라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용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여성인권상담소는 1995년 (사)광주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로 문을 연 이후,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상담과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시민단체들 “의사들 직역 이기심으로 의사 추계 절차 흔들지 말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부족' 추계와 관련한 의사들 반발에 환자·시민·노동단체들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 흔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한인단체연합회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사기여 연대회의는 5일 이 같은 입장장을 냈다. 의료 공급자·소비자·연구자 등으로 구성된 추계위는 지난달 말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 1136명 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의료 이용량의 증가 비율 등이 정확하지 않다면 “중요 요소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시간에 쫓겨 결과를 발표해 유감”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연대회의는 “의료계가 추계위 과정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정과 변수를 밀어 넣어 영향력을 행사해놓고 이제 와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흔들고 있다”며 “추계위는 공급자 측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구조인데, 자신들이 참여한 논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추계 과정에서 의료 이용량은 축소된 반면, 고령 의사의 활동성은 과대 평가돼 미래 의사 부족분이 축소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한 2024년에는 치료가 자연돼 환자들의 의료 이용이 강제적으로 억제됐고, 고령의 의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무리하게 대신한 면이 있어 이들의 임상 활동 확률(실제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할 확률)이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과대학 정원 최종 결정 절차에 대해 “정원만 늘리고 근무·교육·지역 인프라를 손놓는 방식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뿐”이라며 확대된 정원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적절히 배치되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다.

단체는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과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를 주제로 1차 에너지정책 토론회를 열었고,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신규 핵발전소 2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너지 전환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여론에 떠넘기고, 정부는 그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탈핵시민행동 ‘신규원전 반대’ 전국 도보행진

영광한빛원전서 기자회견후 출발

탈핵시민행동이 정부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 관련 공론화 절차에 반발하며 영광 한빛원자력 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전국 도보 행진에 나섰다.

탈핵시민행동은 5일 오전 10시 영광 한빛원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광주대표도서관 참사는 왜 발생했나 건설 현장 구조적 문제와 진단 토론회

8일 전일빌딩 시민마루

중대재해법 보완점 등 논의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속도전’을 비롯해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대책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5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 4층 시민마루에서 ‘광주대표도서관 참사를 통해 본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대책 진단 긴급 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에서는 광주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한 건설 참사 현황과 원인,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와 보완점, 건설 현장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2시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간장 부지에서는 신축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작업자 4명이 숨졌다. 해당 공사는 총사업비 516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1만 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진행 중이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 ①(12kg + 한약재)
- ②(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용봉탕·방생자라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뫼로 297-52